

친환경차 심장 '배터리' 광주서 전 항목 시험·인증 가능

국내 첫 친환경차 인증기관

부품인증센터 배터리 시험동 준공

하반기 전기버스 화재 시험 구축

친환경자동차 심장인 배터리를 시험하고 인증할 국내 최초 '친환경자동차·부품인증센터 배터리 시험실'이 역사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광주시는 22일 빛그린산단 내 친환경자동차·부품인증센터에서 배터리 시험동 개소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부품인증센터는 친환경자동차 배터리·충돌·충격 등을 담당하는 3개의 시험동을 비롯한 배터리 평가장비 9종, 충격안전성 평가장비 10종, 충돌안전성 평가장비 7종 등 26종의 장비가 구축되며 총 사업비는 390억원이다.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로, 국내 첫 친환경차 인증기관이다.

친환경자동차·부품인증센터는 친환경자동차 부품클러스터, 미래차 부품공장, 광주글로벌모터스를 기반으로 부품개발-인증-부품생산-완성차로 이어지는 친환경차 부품산업 사이클의 한 축으로, 광주형 일자리 시즌2 추진 사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배터리 시험동은 지난해 7월 국토부가 반복되는 전기차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하고 배터리 안전성 평가항목을 7개에서 12개로 대폭 강화한 안전기준 전체를 시험·평가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다. 8개 시험실과 화재시험챔버로 구성돼 있다.

이번에 준공되는 8개의 시험실에는 최대 2톤 규모의 전기버스 배터리 시험이 가능한 진동시험기 및 충격시험기, 배터리 침수시 안전성을 평가하는 침수 및 압착 시험기가 설치돼 있다. 또 이중 실험실 4곳은 배터리 폭발에 대비한 방폭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화재시험챔버는 전기 승용차와 버스 실차 시험이 가능한 아시아 최대 규모로 올 하반기

구축이 완료된다.

광주시는 친환경자동차·부품인증센터를 통한 지역 부품기업 지원을 위해 시험·인증 비용의 50%를 지원할 계획이며, 오는 12월 충돌·충격 시험동 구축이 완료되면 인증비용 절감, 연구개발 지원, 친환경차 개발 정보·수집 등을 위한 시간·비용도 절감돼 지역 부품기업의 미래차 전환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개소식에 참여한 이용섭 시장은 "배터리 시험동 개소는 '광주형일자리 시즌2'로 미래자동차 부품클러스터를 조성해 광주를 친환경자동차산업의 메카도시로 만들기 위한 담대한 여정의 또 하나의 큰 진전'이라며 "GGM자동차공장과 친환경차 부품클러스터, 그리고 세계적 수준의 미래차 부품공장을 유치해 친환경차 부품개발-인증-생산-완성차로 이어지는 선순환 사이클을 구축하고 양질의 청년일자리를 창출해 정의롭고 풍요로운 광주를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22일 오후 광산구 빛그린산단에 위치한 친환경자동차 부품인증센터 '배터리 시험동 개소식'에 참석해 김용집 광주시의회 의장, 류익희 자동차안전연구원장 등 내빈들과 테이프커팅을 하고 있다. /광주광역시 제공

“1100실 규모 여수 경도 레지던스 건축 계획 철회하라”

강정희 전남도의원 임시회서 주장

“미래에셋, 경관·조망 고려 안해”

최근 여수시의회가 여수 경도 진입도로(연륙교) 개설공사 부담금 관련 여수시의 추경예산 71억여원을 전액 삭감한 가운데 경도 관광단지내 추진 중인 생활형숙박시설(레지던스) 건축 계획을 철회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정희 보건복지환경위원장(더불어민주당·여수 6)은 22일 전남도의회 제35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에 나서 “미래에셋의 경도 생활형숙박시설 건축계획은 경관과 조망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고 공공재인 경관을 사유화하는 것”이라며

“경도 레지던스 건축 계획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강 위원장은 “미래에셋 측이 1월 13일 여수시의 회와의 간담회에서 생활형숙박시설을 1184실에서 63실 줄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그야말로 흥내만 낸 것”이라며 “미래에셋이 현재 계획대로 경도에 레지던스를 신축하는 것은 공공재인 경관을 사유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래에셋은 다도해의 보석인 경도의 경관을 해치는 개발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경관을 보존하고 세계적인 해양관광단지에 걸맞은 관광데마시설을 건립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했다.

강 위원장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전남도 건축경관위원회의 의결을 따르지 않은 현행 레

지던스 건축 계획을 불허해야 마땅하다”며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과 전남도가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래에셋그룹은 2020년 4월 여수 경도 2.15㎢(65만평)를 약 3400억원에 매입하고, 2024년까지 1조5000억원을 투입해 경도를 세계적인해양관광단지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2020년 6월 경도 사업 착공식에서 호텔, 콘도 등 숙박시설과 해상케이블카, 상업시설 등을 갖춘 복합휴양단지로 개발하겠다고 밝혔으나, 이듬해 4월 사업안을 변경해 경도 관련 격인 연륙교 진입부 6만1500㎡ 일원에 지상 29층, 1184실 규모의 레지던스 신축계획 사실이 알려지면서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해남 오시아노 관광단지 '리조트호텔' 첫삽

400억 들여 120실 규모 4성급

22일 해남 오시아노관광단지에서 김영록 전남지사, 오용우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안영배 한국관광공사 사장 등 주요 인사와 지역민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시아노 리조트호텔'이 착공했다. '오시아노 리조트호텔'은 한국관광공사가 해남 오시아노 관광단지에 400억원을 들여 대지면적 3만 9166㎡에 지하 1층 지상 5층, 120객실 규모의 4성급 호텔로 건립한다. 2018년 건립 기본계획을 시작해 2021년 실시설계와 시공사 선정을 완료했으며, 2023년 하반기 개장 목표다.

오시아노 관광단지의 아름다운 주변 바다와 섬 사이의 황홀한 일몰 광경을 모든 객실에서 감상할 수 있다. 또 인피니티풀, 야외 테라스, 정원 등 공

간 배치와 녹색건축물, 장애 없는 생활 인증 등을 취득해 모두에게 열린 친환경 호텔로 건축한다.

오용우 문화체육관광부 차관과 안영배 한국관광공사 사장은 “오시아노 리조트호텔 건립이 장기간 침체한 오시아노 관광단지를 활성화하는데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전남도와 협력해 오시아노 관광단지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오시아노 리조트호텔 조성은 그동안 문화체육관광부, 전남도, 해남군, 한국관광공사가 함께 노력한 오시아노 관광단지 활성화의 산물”이라며 “호텔 착공식을 계기로 민간투자 유치에 더욱 노력을 기울여 오시아노 관광단지가 서남해안 관광 중심지로 떠오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 7500억 '광양 LNG 터미널 사업' 유치

포스코·포스코에너지 합작법인 엔이에이치(주)와 투자협약 체결

전남도가 22일 (주)포스코와 포스코에너지(주)의 신설 합작법인 엔이에이치(주)와 7500억원 규모의 '광양 LNG 터미널 구축사업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김영록 전남지사, 김학동 (주)포스코 대표이사 부회장, 정기섭 포스코에너지(주)대표, 신은주 엔이에이치(주)대표가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엔이에이치(주)는 (주)포스코가 제공한 광양국가산단 부지에 포스코에너지(주)의 기술력 등을 바탕으로 20만㎥용 LNG 저장탱크 2기 추가 증설 등을 추진한다.

사업 기간은 올 상반기부터 2025년까지다. 터미널 구축 기간 월평균 600여 명의 건설인력 일자리 확보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보탬이 될 전망이다.

특히 이번 협약은 에너지 전환 탄소중립 주요 과제인 수소산업 육성, 석탄발전축소에 따른 LNG 발전 확대, 수소 환원제철 도입 등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LNG 수요에 대비한 LNG 공급기지를 안정적으로 확보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전남도는 이번 광양 LNG 저장 시설이 증설되면 현재 추진 중인 여수 묘도 LNG 터미널과 연계해

전략적 상생 발전을 이끌어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새로운에너지 허브로 육성할 방침이다.

또한 LNG 버커링·서비스 등 관련 산업을 유치해 국가산단 경쟁화 등 탄소중립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저탄소 신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광양 LNG 터미널은 전남도의 2050 탄소중립 정책 실현을 위해 중요하고 꼭 필요한 기반시설”이라며 “100년 성장의 먹거리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저탄소 에너지 전환에 동참할 첨단 기업을 적극 유치하고, 미래 신산업 핵심 인프라 구축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시, 빛고을 전통문화예술 잇는다

전통문화관에 19억 투입

맞춤형 콘텐츠 제공

광주시는 “올해 전통문화관 개관 10주년을 맞아 19억원을 들여 위드 코로나 시대 맞춤형 전통문화 예술 콘텐츠를 제공하고 광주시 무형 자산을 보존하기 위한 사업 등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지역 전통문화자원을 통한 전통문화예술 콘텐츠 확대 ▲무등산을 찾는 내·외국인에게 재미난 전통체험 제공 ▲예술인과 생활 속 환경 보호 실천 ▲광주시 무형자산 보존·보급에 포커스를 맞춰 공연, 강좌, 체험, 기록화 사업 등을 운영한다.

또 토요상설공연, 무등풍류연, 무등울림 등 주요 공연은 대면·비대면 방식으로 병행 진행하고, 모든

행사를 전통문화관 사회관계서비스망(SNS)을 통해 생중계해 시민 누구나 전통문화관 행사장과 온라인에서 생생하게 즐길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광주시 무형문화재 보유자의 기여능을 전수하는 전통문화예술강좌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소규모로 전환한다. 연중 상시운영하는 전통문화예술체험 '풍류노리'는 국악기, 공예, 다례, 한복체험 등 7개 분야를 국내외 일반인들이 체험하는 프로그램으로, 올해는 '그린·스마트·편 시티' 조성에 맞게 전통놀이 위주로 재미있게 구성해 전통문화의 즐거움을 전할 예정이다.

예술인과 생활 속 환경 보호 실천을 위해 훼손된 무등산 등산로의 환경정비를 추진하는 무등산 스담산행은 올해부터 참여자를 예술인(단체)에서 유관기관까지 확대 추진한다. /박진표 기자 lucky@

모던 슬라브옥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아파트, 빌라, 원룸, 주택, 상가건물, 대형빌딩 등(슬라브 옥상) 시공

옥상지붕공사

슬라브 주택, 데스리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옥상 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 30-0934833호 제 30-0949873호

광주·전남 같이 하실분 모십니다.

062)531-3530, H. 010-9229-3530

MODERN (트윈스틸) 시공 문의

특허청

봄에 떠나는 그로운 섬여행

거문도 + 백도

녹동-거문도 1시간20분

매주 금,토,일 광주출발 셔틀버스 운행

당일투어

1인 139,000원

광주-녹동항 왕복 셔틀버스 포함
녹동항 출발 왕복 쾌속선, 백도 유람선 관광
중식 1회
서도→거문도 수송 1회 포함

1박2일 투어

1인 199,000원

광주-녹동항 왕복 셔틀버스 포함
녹동항 출발 왕복 쾌속선, 백도 유람선 관광
민박(4인1실) 1박, 식사 3회
서도→거문도 수송 1회 포함

후원
삼도해운, 플래티늄

승선문의
061-834-3434

예약센터
메이투어:062-385-0515
아이티여행사:062-382-8866